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07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6월 5일 (음력 5월 2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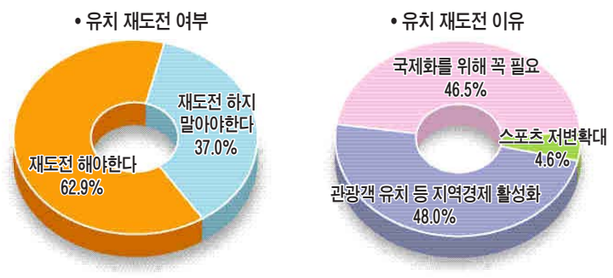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광주·전남 여론 주도층 10명 중 6명

"U대회 재도전 하라"

광주일보 조사

■하계 U대회 유치 재도전 설문



광주·전남 여론 주도층 10명 가운데 6명은 광주시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에 재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광주일보가 인터넷 패널 484명을 대상으로 3일~4일까지 이틀 동안 긴급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 205명의 응답을 취합·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패널들은 '광주시가 2015년 하계 U대회 유치에 재도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2.9%가 '재도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37.0%였다.

이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 유치에 거듭 도전함으로써 광주시의 도시브랜드 위상을 세계에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재도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패널들 가운데 48.0%는 '재도전해야 하는 이유'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46.5%는 '광주시의 국제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를 꼽은 패널은 4.6%에 그쳤다.

또 '만약 U대회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가장 필요한 준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6.8%가 '스포츠 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라고 대답했으며, '정부지원'을 꼽은 패널은 35.6%로 집계됐다. '시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응답한 패널은 17.5%로 나타났다.

이같은 응답은 실제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국제대학스포츠(FISU) 연맹 실사에서 광주시가 스포츠·숙박 시설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적 측면의 지원도 러시아 카잔에 뒤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U대회 유치 재도전에 부정적인 응답자 가운데 44.7%는 '유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를 이유로 들었으며, '대회 유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응답은 42.1%를 차지했다. 광주시의 '대회 개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2.8%에 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터넷 패널=광주일보사가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 한국 신문 사상 최초로 구성한 전문가 자문 그룹. 광주·전남지역 학계, 법조, 정치, 경제, 여성,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484명이 참여하고 있다.

재·보선 한나라 참패

쇠고기 심판 … 전국 기초장 9곳 중 1곳만 당선

영광군수 정기호(민)·광주 남구 시의원 김선문(민)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 처음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완승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파동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여권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반면 통합민주당이 추동력을 얻게 되는 등 정국 구도는 혼미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최대 접전지역인 수도권의 경우 한나라당은 3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하고 11곳의 광역의원 선거에서 2곳에서만 승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최대 강세지역인 영남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 3곳에서 1곳만 건지고 2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주는가 하면 충남지역 4곳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자유선진당에 전패 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서울 강동구청장과 인천 서구청장, 영광군수 등 수도권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3곳, 수도권 광역의원 선거 11곳 중 9곳, 기초의원 선거 5곳, 광주 광역의원 1곳, 광주 기초의원 1곳에서 각각 승리하며 여당을 완전히 제압했다.

민주당은 비록 충남지역 선거에서 자유선진당에 전패했지만 충북과 제주지역 광역의원 선거 2곳에서 모두 승리하며 지난 4·9 총선에서 이어 전국 정당의 기반을 이어갔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던 경기도 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광주·전남에서는 영광군수에 통합민주당 정기호 후보가 당선되는 등 보궐선거가 치러진 4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정 후보는 이날 선거에서 1만2천320표(개표율 99%기준)를 획득, 무소속 후보 단일화 바람을 몰고 거세게 도전한 2위 장현 후보를 4천453표 차이로 따돌렸다.

광역의원을 뽑는 광주시 남구 1선거구에서는 김선문 민주당 후보가 7천776표를 얻어 2위인 민주노동당 이승기 후보를 4천134표 차이로 제쳤다.

기초의원을 뽑는 광주시 남구 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남광인 후보, 광양시 다 선거구에는 무소속 박필순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한편, 이날 치러진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23.2%(잠정치)로 지난 2000년 6·8 재보궐 선거 이후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홍행기·박지경·김지을 기자 redplane@

18대 국회 '정상 개원' 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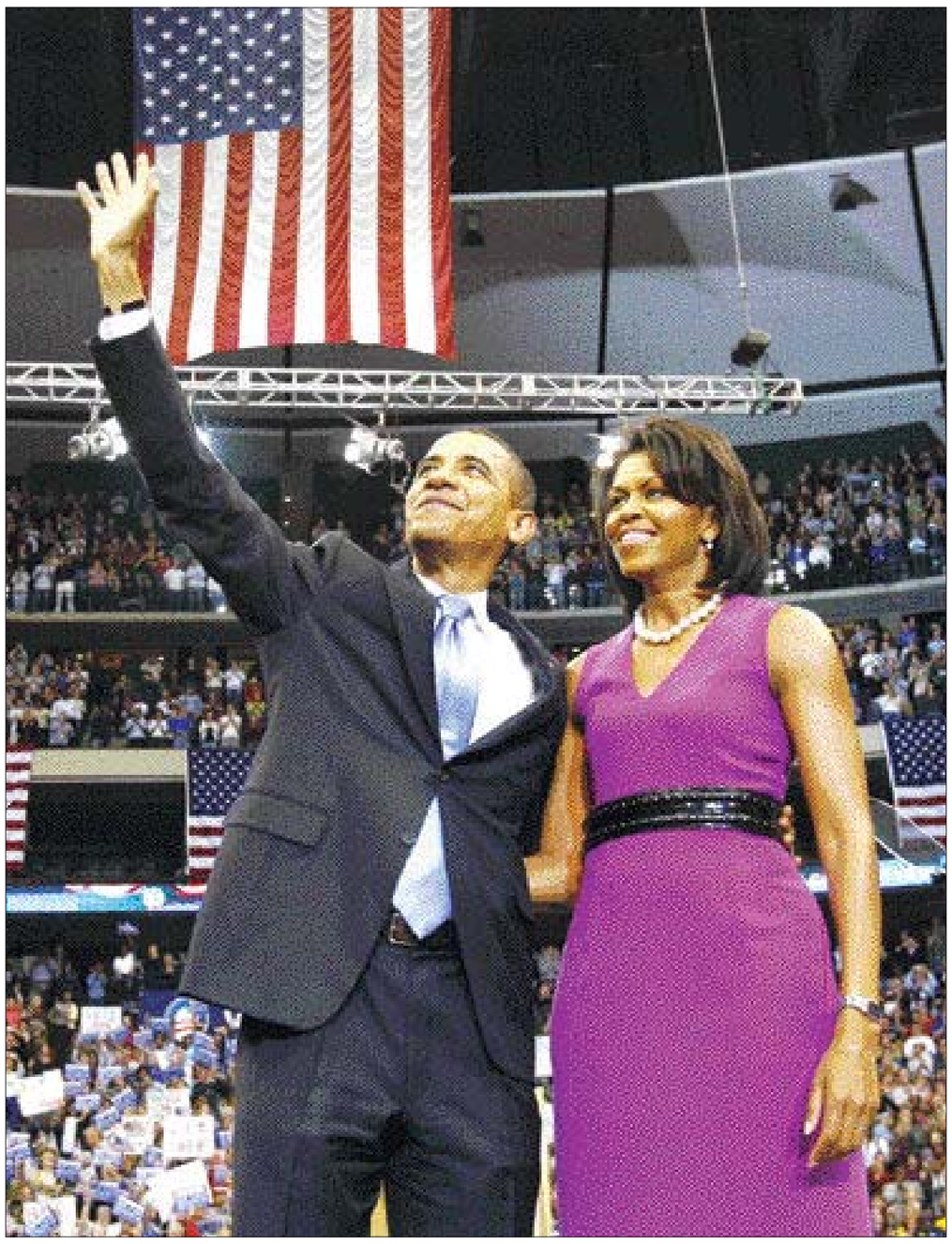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민간자율규제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가 재협상을 선언하기 전까지 무기한 국회 등원 거부 입장을 천명하고, 한나라당도 야당없는 단독 개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18대 국회의 정상 개원이 무산됐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무산되는 등 18대 국회는 문도 열지 못한 채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졌으며 국회의장 선출 등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주요 법안 처리도 늦어지게 됐다.

4일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국회의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공동으로 등원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흑인 대통령 후보 탄생 흑인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3일(현지 시각) 부인 미셸과 함께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 참석,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민주당 후보 확정

美대선 사상 첫 흑백대결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후보가 3일(현지시간) 탄생했다.

〈관련기사 6면〉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맞붙은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날 몬태나와 사우스 다코타 주를 끝으로 막을 내린 5개월간의 경선 레이스에서 승리, 사상 첫 흑인 대통령 도전권을 따냈다.

이로써 오는 11월 4일 미국 대선은 민주당의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간의 사상 첫 흑백대결로 치러지게 됐으며, 미 건국 232년만에 흑인이 양대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역사적 상황을 맞았다.

오바마는 이날 사우스 다코타 프라이머리(예비경선)가 끝난 오후 9시 현재 지역별 경선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인 '슈퍼 대의원'을 합쳐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넘버' 대의원 2천118명을 넘어섰다고 AP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CNN은 사우스 다코타 경선이 끝난 오후 9시 현재 오바마가 선출직 대의원 1천753명과 당연직인 슈퍼대의원 366명 등 총 2천119명의 대의원을 확보, '매직넘버'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힐러리는 1천921명의 대의원을 기록 중이다.

오바마는 경선 승리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저녁 역사적인 여행의 끝과, 새롭고 보다 나은 미국을 가져올 또다른 여정의 시작을 동시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7

하나뿐인 지구, 더 소중히 지켜주세요!

거창한 약속보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지구를 푸르게 지켜줍니다.
쓰레기와 일회용품은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가는 우리 이웃들처럼-
금호아시아나의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가꾸는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사람
Beautiful Earth, Beautiful People